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아카이빙 방법론 연구*

전시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를 중심으로

The Archival Method Study For Female Worker in the 1970s : Focused on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

이혜린(Lee, Hye Rin)** · 박주석(Park, Ju Seok)***

1. 머리말
2. 1960년대 기록학의 새로운 경향과 예술의 기록물 활용
3. 노동자 기록으로서 〈Women & Work〉의 내용 분석 및 평가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4233).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sunday9919@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firstjason@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2019년 12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1월 06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01월 23일

■ 기록학연구 63, 145-165,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3.145>

〈초록〉

영국에서 활동한 메리 켈리와 케이 헌트, 마가렛 해리슨이 협업한 전시 〈Women & Work〉는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학에서는 일반인이나 공동체,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집의 다양화를 강조했고, 예술계에서는 정치적 발언 혹은 노동자, 페미니즘 등 주제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 상황으로 세 명의 작가는 기록학과 예술계에서 주요 쟁점이 된 노동자와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전시 〈Women & Work〉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 현실과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 가정 내에서의 가사 분담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작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사진과 영상 촬영, 관련 문서 수집 등의 방법을 사용해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Women & Work〉는 세 명의 작가가 협업한 미술 작품인 동시에 1970년대의 노동 현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70년대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영국의 여성 노동자를 다룬 〈Women & Work〉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나아가 기록물과 기록행위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다양한 시선과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평가해 이를 기록의 사회적·정보적 가치의 범주로 고찰한다.

주제어 : 메리 켈리, 케이 헌트, 마가렛 해리슨, 여성과 노동, 여성운동, 노동자아카이빙, 공동체 아카이브

〈Abstract〉

〈Women & Work〉, in collaboration with Mary Kelly, Kay Hunt and Margaret Harrison, tells the story of workers in the 1970s. Since the late 1960s, the world has undergone many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and social movements have been active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workers. This phenomenon led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llection of the general public, the community, and the min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artist's political remarks and themes in the art world. 〈Women & Work〉, completed in conjunction with these social issues, surveyed and recorded the reality of workers in a factory in London and produced it as a artwork. 〈Women & Work〉 is a collaborative work of three artists, a record of workers in the 1970s, and a record of the labor situation, factory, and even the history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methods and features of 〈Women & Work〉, which dealt with the lives of women workers in the 1970s, based on social conditions.

Keywords : Mary Kelly, Kay Hunt, Margaret Harrison, Women & Work, Women's Liberation, Labor Records and Archives, Community Archives

1. 머리말

1960년대 후반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각국의 사회운동을 이끈 그룹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연결되었다(잉그리트 길허홀타이 2009, 13). 비민주적인 대학 행정과 위압적인 정치, 관료화된 구좌파, 순응적인 기성세대와 가부장적인 부모, 위계적인 성질서와 정형화된 성 관념, 물신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투쟁 등 다양한 방향의 운동을 통해 기성 질서에 도전했다(안효상 2002, 273). 각 계각층의 목소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파생해 확장했고,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을 차례로 일으켰다. 제도와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고, 그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때로는 대중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도 매우 다양했다. 특정 분야의 권위자부터 학생, 주부, 군인, 노동자 등 여

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나섰고, 많은 예술계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예술계는 인간과 인간이 개입된 사건 사이의 실제적 관계를 드러내 보이면서 대중의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증언, 고발, 비판의 미술, 이른바 저항미술이 설득력을 얻으며 활기를 띠었고, 70년대의 호황기를 거쳐 80년대에도 비주류로서 그 명맥을 유지했다(안영현·김지혜 2005, 234). 예술계의 활동과 관련해 하워드 진의 2004년 인터뷰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워드 진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고, 예술은 “사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킨다”고 언급했다(하워드 진 2008, 111). 그의 말처럼 당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에 언어적 장치나 노골적인 메시지를 개입시켜 부조리와 전쟁, 환경, 여성, 인권, 지역적 이슈 등 사회적 발언을 위한 매체로 활용했다.

사회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로 예술가, 영화제작자, 작가, 비평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노동자연합(The Art Worker’s Coalition)’은 여성 작가들이나 유색인종의 예술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과 베트남 전쟁 등에 대해 도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전혜숙 2008, 163-164)했고, 뉴욕에 기반을 둔 예술 단체인 ‘예술가 및 작가 시위(the Artists and Writers Protest(AWP))’는 『The New York Times』에 ‘End Your Silence’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광고를 실어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Jane G. Gonzales 2013, 41). 또 미술 잡지 『Artforum』은 1970년 9월호에 ‘The Artist and Politics! A Symposium’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정치적 행위에 대해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예술가들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을 두고, 미술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아서 단토(Arthur Danto)는 70년대의 미술계는 미술의 한계를 밀어낸다거나 미술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목표에 미술을 봉사시키고자 하는 의제에 열심이었던 예술가들로 넘쳐났다(이성훈·김광우 2004,

62)라고 해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쇄신 중에서 여성 인권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 중 하나였다. 특히 여성 예술가들은 여성으로서 어디에서 전시할 것인가, 작업할 공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쟁점에서부터 정치적·미학적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들은 여성의 경험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예술 형태를 찾았고, 1970년대 초에는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미술실천에 의식적으로 끼워 넣는 작업에 착수(휘트니 채드워 2006, 441)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영국에서 활동한 메리 켈리(Mary Kelly)와 케이 헌트(Kay Hunt), 마가렛 해리슨(Margaret Harrison)이 여성들의 노동 현실과 노동 과정의 변화, 동일임금법(Equal Pay Act)¹⁾ 시행 등을 조사해 이를 기록화한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²⁾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전시를 위해 협업한 작가들의 면면을 정리할 것이다. 메리 켈리는 1970년대 초 히스토리 그룹(History Group)이란 여성주의 단체에 가입했는데, 이 그룹에서 더 이론적인 의식의 발흥을 목적으로 마르크스, 프로이트, 알튀세르의 저작을 읽으면서 이들의 텍스트가 '자신들의 개인 삶과 작업에 끼친 영향을 검토(양효실 2016, 106-107)했다. 오랜 시간 동안 켈리는 여러 작품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시선과 입장을 드러냈는데, 대표작 중 하나인 〈Post-Partum Document〉에서는 아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가사 노동을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겼다.

전시 〈Women & Work〉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던 케이 헌트는 1933년생으로 런던 서더크(Southwark) 지역에서 태어

-
- 1) 영국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별을 기초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다.
 - 2) 전시명은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로, 본 논문에서는 〈Women & Work〉로 표기해 사용한다.

났다. 길퍼드(Guildford)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68년 학생운동이 일어난 시기에 학생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40명 중 한 명이었다(John A. Walker 2001, 144).

마지막으로 마가렛 해리스는 1940년 영국 태생으로, 1970년대부터 동료 작가이자 남편인 콘래드 앳킨슨(Conrad Atkinson) 및 다른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저임금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 공장 노동자 등의 문제를 기록한 작품을 제작했다(Studio International 2016).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경찰의 검열로 개막 후 하루 만에 전시가 종료되는 일을 겪었다.

작가들은 여성의 노동문제를 사회적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기록을 수집하고, 정보를 활용해 아카이빙했으며, 이를 단순히 자료로서 공개한 것을 넘어 전시라는 매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들이 활용한 방법론은 기록학에서의 기록 생산 및 수집 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기록학적 차원에서 그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2. 1960년대 기록학의 새로운 경향과 예술의 기록물 활용

1960년대의 사회 변화는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기록학에도 새로운 경향을 가져왔다. 기록학에서의 새로운 흐름은 주로 보수, 주류, 전통에 대응하는 비정부 민간 기관 및 지역 소수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가진 영역에서 강조(박주희 2014, 16-17)되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의 삶·육구·필요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기록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한다는 하워드 진의 주장은 미국 기록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하워드 진 2009, 221). 또 비슷한 시기에 대두된 아키비즘(Archivism)은 SAA를 중심으

로 신진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협회 내의 엘리트주의와 비민주적 조직 운영, 수집의 다양성(흑인,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기록)의 필요, 베트남 전쟁에 국가 공적자금 사용의 비판 등 주로 60년대 사회문제의 축소판으로서 SAA의 개혁과 수집문제에 대해 논의(이현정 2014, 219-220)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의식을 지닌 아키비스트들은 부유하지도,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소수 민족,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일반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아키비스트들은 구술사와 민속자료, 대중문화의 예술품 등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Allan Spear 1984, 77).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록에만 집중되어온 모습에서 다양한 주제와 계층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철학과 지향의 문제(곽건홍 2011, 26)라는 점이 보편화하였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소리는 기록학계뿐 아니라 예술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기록학과 예술계 모두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대상이나 방법론을 찾고 발전시키려 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기록학에서 주로 기록의 생산 및 수집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했다면, 예술계는 보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들의 작품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계몽시키는 사회적 메신저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 시기 이후 발생한 공공미술(public art)은 68혁명을 기점으로 태동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개념으로, 이 논의는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는 행동가의 지위를 논의하는 상황(김준기 2018, 97)으로까지 나아갔고, 1960년대 이후 서양 미술사의 급진적 전환과 관련되어 페미니즘, 반전, 인종, 민족 등의 정치적 이슈가 미술의 전환(김주현 2013, 124-125)을 이끌었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현상과 물음들을 언급하며 사회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발언한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자 사진이나 영상, 문서 등의 객관적인 대상이나 정보를 이용

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언어를 사용해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부터 여러 출처의 기록물을 활용하거나 직접 기록을 생산하는 등 매우 다양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구체적일 것이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었던 버윅스트리트 콜렉티브(Berwick Street Collective)³⁾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야간 청소부들의 작업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 〈Nightcleaners〉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전직 청소부였던 홉스가 야간 청소부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리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1972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유도하는 캠페인의 일환이었다(Lamm Kimberly 2018, 195). 1970년대 영국에서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이 매우 중요한 사회 쟁점이었고, 많은 여성들 중 야간 청소부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 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위치(Elizabeth cowie 2011, 178)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예술가가 기록물이나 기록행위를 활용한 작품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또 다른 예로 한스 하케(Hans Haacke)의 작품을 들 수 있다. 하케는 작품 〈Shapolsky et al. Manhattan Real Estate Holdings, a Real-Time Social System, as of May 1, 1971〉에서 뉴욕 카운티 서기 사무실(New York County Clerk's Office)의 소장기록물을 활용했다. 이 작품은 특정 그룹이 뉴욕 로어 이스트(Lower East Side)와 할렘(Harleme) 지역에 소유한 142개의 건물 사진과 주소, 소유권 이력 등이 담긴 기록(Hans Haacke 2016, 46)이다. 작가는 관련 기록을 소장했을 만한 아카이브를 찾아 관련 기업, 협력업체 간의 부동산 소유와 이동 관계를 추적(김진아 2006, 56-57)해 소수가 지배하고 있는 뉴욕의 부동산 상황을 알려 비판하고자 했다. 또 미술노동자연합의 로널드 헤이벌(Ronald Haeberle)과 피터 브랜트(Peter Brandt)는 베트남의 한 마을에 미군이 행한 참혹한 학살 광경을 찍은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3) 버윅스트리트 콜렉티브(Berwick Street Collective)에는 〈Women & Work〉의 참여 작가인 메리 켈리를 비롯해 마크 칼린(Marc Karlin), 제임스 스콧(James Scott), 험프리 트레블리안(Humphrey Trevelyan) 등 예술가와 영화 제작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3. 노동자 기록으로서 〈Women & Work〉의 내용 분석 및 평가

메리 켈리와 케이 헌트, 마가렛 해리슨은 197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런던 버몬지(Bermondsey)에 위치한 공장 한 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역은 런던의 여러 공장지대 중 하나로, 잼과 비스킷, 제과, 양철 상자 등 제조공장과 이를 포장하는 곳이 설립되어 여성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Ursula de la Mare 2008, 64-65)했다는 지역성을 갖고 있다. 런던의 대표적인 공장지대라는 특징과 노동자라는 공동체적 특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Women & Work〉는 하워드 진을 비롯한 많은 기록학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기록하려는 관심과 요구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Women & Work〉의 배경이 된 영국은 공동체(community) 아카이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1960년대 무렵 공동체 개념이 등장한 이래 최근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형성(이경래·이광석 2013, 5)되었고, 공동체 관련 저술과 저널의 출간을 통해 사라져 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가족, 여성의 삶을 포함해서 종종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는 공동체의 삶을 기록(이경래·이광석 2013, 9-10)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 명의 작가는 영국 아티스트 유니온(Artists' Union) 소속으로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여성 해방(Women's Liberatio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력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Women & Work〉도 노동조합 및 차별 철폐 캠페인과의 연계를 모색(Julia Bryan-Wilson 2014, 147)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1970년대 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받은 불평등한 대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위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Women & Work〉를 공동체 영역에서 평가하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버몬지 지역의 금속 상자 공장에서 일한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업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는 여성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 정의, 노동 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2년 동안 여성 노동자 200명의 삶을 기록했고, 150명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4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그림 1〉 〈Women & Work〉 전시 전경



※출처: South London Galley 제공.

〈그림 2〉 〈Women & Work〉 전시 전경



※출처: South London Galley 제공.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조사의 결과는 매우 사실적이었다. 그동안 예술작품은 형태와 표현 등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1960년대를 기점으로 작가들은 작품이 단순히 예술적 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것이 담는 개념이나 내용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즉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이 전시에서 작가들이 선보인 작품들은 기존의 미술계가 추구하던 지향점에서 탈피해 여성 노동자라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사진과 영상, 문서, 기록 등의 자료를 선택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시는 변화를 꾀하던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미술계와 기록 학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 이를테면 대상의 확대와 표현의 다양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년의 조사를 거친 공동 작업은 흑백 사진, 오디오 테이프, 표, 영상 등의 기록물로 윤곽을 드러냈다. 공장 조립 라인의 이미지와 시끄러운 소리를 담은 음성 파일, 노동자들의 초상, 끊임없이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손 사진, 매일 반복되는 작업 과정과 일상을 정리한 일과표 등이 전시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 과정에서 오는 차이를 피력하는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투사되었고, 회사 및 산업 재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와 녹음 파일(John A. Walker 2001, 145)도 함께 놓였다. 전시에서 다루는 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영화와 영상, 책 등의 각종 참고 자료와 노동과 관련한 법, 예를 들어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1970)과 공장법(Factories Act, 1961),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일부를 함께 전시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발견하고, 이를 보여주고자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를 하나의 논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이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대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이미지나 메시지를 사용했으나, 세 명의 작가들이 예술가의 전통적인 예술가의 태도보다는 더 혁신적이고 분석적인 면모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작가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각성이 절실했던 만큼,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작가들은 공장 노동자들을 급여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월급제와 시급제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속한 노동자들의 성별과 직무를 조사해 표로 제작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했다.

[GROUP A] 연소득 2,000파운드 미만의 노동자가 속한다.

[GROUP B] 연소득 2,000파운드 이상 3,000파운드 미만의 노동자가 속한다.

[GROUP C] 연소득 3,000파운드 이상의 노동자가 속한다.

연소득이 가장 낮은 [GROUP A]에는 489명의 공장 노동자 중 348명이 있고, 남성은 142명, 여성은 206명이다. 이들 중 월급제 노동자는 남성 11명, 여성 38명이고, 시급제 노동자는 남성 131명, 여성 168명이다. [GROUP B]의 월급제 노동자 중 남성은 37명, 여성은 11명이다. 이 그룹에는 71명의 시급제 남성이 있고,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GROUP C]에 속한 직업군에는 일의 강도가 높은 고급 기술직이거나 관리직 등이 포함된다. 22명의 남성 월급제 노동자가 이 그룹에 해당하지만, 여성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1975년도의 공장에는 총 489명이 근무했고, 이들 중 여성 노동자는 44.4%인 217명에 달했지만, 어떤 여성도 3,000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받는 C그룹에 속하지 않았다.⁴⁾

남녀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쟁점 중 하나가 된 임금 체계는 직무평가(Job Evaluation)라는 제도에 기초해 설계되었다. 법에 따라 동일고용 혹은 비슷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전일제 혹은 시간제, 재

4) 1975년 기준.

택근무자 등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작가들의 조사 대상인 금속상자 공장은 1971년부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기술 정도에 따라 직무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했다. 직무 평가는 경영진을 비롯해 업무 감독관과 관리자, 직원 등 남성 16명과 여성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결정했고, 평가를 거쳐 금속상자 공장의 업무를 총 여섯 개의 등급으로 구분했다. 가장 높은 업무 강도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평가받은 6등급은 공장 내 모든 생산 라인을 세팅하는 업무가 유일했다. 여러 단계 중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가장 하위 등급인 1등급부터 3등급까지 147명, 다음 순위인 4등급에는 5명이 포함되었지만 5등급과 6등급에 속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남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혹은 기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받았음에도 임금에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가들은 1973년 1월부터 1974년 10월까지 업무 등급과 성별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조사해 비교했다.⁵⁾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고, 기술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 시기 영국에는 노동자 간의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별을 기초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임금법이 존재했다. 동일임금법의 입법 이유에 대해 전형배는 영국에 만연해 있던 남녀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1970년대에

5) 전지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73년 1월 1등급인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55p이고, 그에 반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5%인 46.75p이다. 4등급인 여성은 최하위 남성 등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1974년 1월, 여성은 동일한 등급의 남성이 받는 임금의 90%를 받았다. 4등급에 해당하는 여성은 1등급으로 평가된 남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2등급으로 평가받은 남성보다 적게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여성의 임금에 조금의 변화를 보였는데, 여성들은 1등급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95%와 자신과 같은 등급의 남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90% 중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들어 이미 영국 노동력의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16세에서 59세 사이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전형배 2010, 277)고 언급했다. 구미영은 당시에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심각해 관련 법 조항이 시행되며 문제가 수습되는 듯했으나 1970년대 영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영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10년간 불과 1% 줄어드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된 것도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구미영 2008, 126)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 구조를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발언했다. 이런 점이야말로 작가들이 〈Women & Work〉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남성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아야 했던 부조리를 들추고, 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자고 촉구하는 방법이었다.

작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비단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처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로 다음과 같이 이름과 나이, 가족 관계, 직무, 일과 등이 간략히 쓰인 노동자들의 일과표를 제시한다.

먼저, 〈그림 3〉의 루이자 클락(Louisa Clark)의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5시 25분에 하루를 시작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는 등 몇몇 집안일을 하고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든다. 〈그림 4〉의 클리프톤 맥킨슨(Clifton Mckinson)은 32세 남성으로 1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두었다. 그는 오전 6시에 일어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일과를 끝낸다. 두 사람은 모두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공장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과를 말하고 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뒤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단조로운 일과지만, 작가들은

〈그림 3〉 루이자 클락의 일과

5:25 AM: GET CUP OF TEA IN BED
 5:40 AM: GET UP, GET MYSELF READY
 TIDY ROUND
 6:15 AM: HAVE TEA AND TOAST
 6:50 AM: LEAVE HOME
 7:50 AM: CLOCK IN, NEVER LATE
 8:00 AM: START WORK
 12.30 PM: QUICK LUNCH
 DO SHOPPING
 1:30 PM: START WORK
 5:00 PM: STOP WORK
 WALK HOME TO PECKHAM
 5:45 PM: GET HOME, HUSBAND
 MAKES CUP OF TEA
 6:15 PM: COOK DINNER TOGETHER
 7:00 PM: DO SOME HOUSEWORK
 8:00 PM: SIT DOWN, WATCH TELE
 10:00 PM: MAKE CUP OF COFFEE
 10:30 PM: GO TO BED

LOUISA CLARK, AGE 59
 1 DAUGHTER AGE 38

DOUBLE SEAMER OPERATOR
 FULL TIME 8:00 AM - 5:00 PM

※출처: <Women & Work> 전시도록

〈그림 4〉 크리프톤 맥킨슨의 일과

6:00 AM: GET UP, MAKE
 BREAKFAST
 6:45 AM: LEAVE HOME
 7:30 AM: START WORK, GET
 LINES READY
 8:00 AM: MACHINES START,
 KEEP MACHINES RUNNING
 12:30 PM: LUNCH, RING WIFE
 1:30 PM: START, INSPECTION,
 GENERAL SUPERVISING,
 LABOUR, PRODUCTION
 9:30 PM: FINISH WORK
 10:00 PM: GET HOME, LIGHT MEAL
 CHAT WITH WIFE
 12:00 PM: GO TO BED

CLIFTON McKINSON, AGE 32
 1 SON AGE 10 4 DAUGHTERS
 AGES 7, 6, 4, 2

SECTION FOREMAN

※출처: <Women & Work> 전시도록

두 사람이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일과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행동을 서술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크리프톤과 다른 남성 노동자들은 ‘출근’을 시작으로 ‘기계 작동’, ‘관리’, ‘기계 점검’, ‘생산 라인 준비’, ‘퇴근’에 이르기까지 공장에서의 자신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언급했다. 이에 비해 루이자와 다른 여성들은 대부분 노동과 관련한 일과를 ‘출근’, ‘퇴근’ 등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진술했다. 듀크 대학 부교수인 김벌리가 지적하였듯 여성들은 직장보다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 이를테면 집 안 청소나 청소, 요리,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Lamm Kimberly 218, 195). 이런 현상에 대해 켈리는 남성들은 그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

지 이야기하지 않고, 여성들은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행해지는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이 가정에서의 역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의 이직 사유를 묻는 설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남성들의 이직 이유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급여였다. 다른 이유로는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직, 정리해고, 적성, 동료 간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반면 여성들이 이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정 내에서의 상황 변화였다. 자신들이 육아를 담당해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맞는 조건으로 이직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록학적 관점에서 〈Women & Work〉를 기록물 자체로 평가해 연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 역시 전통적인 예술 매체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시에 적대적이었던 ISA(The Union or League of Socialist Artists)는 단순한 기록이 ‘진정한 예술’로 인정하는 것을 의심하며,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부하기도 했다. 그에 반해 기록물을 이용한 작가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납득한 비평가들, 가령 폴 움벨(Paul Wombell), 빅터 버긴(Victor Burgin) 등은 “착취 문제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술도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관람객들 스스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극했고(John A. Walker 2001, 147), 로잘린드 델마(Rosalind Delmar)는 이 전시를 “표현은 절제되었지만 명쾌하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실험”(Rosalind Delmar 1975, 33)이라고 평가했다.

〈Women & Work〉의 작가들 스스로도 이 작업에 매우 진지하고 고취된 모습을 보였다. 켈리는 “기록물과 공장 환경을 조사한 방법과 작품에서 사

6) 2018년 10월 1일 REcreativeUK에서 메리 켈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작가의 여러 작업들 특히 〈Women & Work〉와 관련한 당시 상황이나 작가들의 의도 등을 언급했다.

용한 모든 형태의 정보, 그리고 시각적 표현은 관람객에게 공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동일임금법을 구현할 방법을 제공하려는 노력”(Elizabeth cowie 2011, 175)이라고 말했다. 헛트는 전시 〈Women & Work〉 이후에 “금속상자 공장의 여성 노동자 중 일부를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John A. Walker 2001, 147)고 평가했다.

이처럼 〈Women & Work〉는 1970년대 초반의 여러 사회 문제 중, 대표적인 공장 지역이었던 버몬지에 위치한 금속 상자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담았다는 점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당시 상황을 그 자체로 묘사하는 사진들과 영상들, 문서들, 인터뷰들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당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로서, 기록학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정보 가치⁷⁾와 증거 가치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메리 켈리와 케이 헛트, 마가렛 해리슨은 〈Women & Work〉를 통해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체계 하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부조리한 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작가들과도 매우 긴밀했다. 현실은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작가 중 한 명인 케이 헛트의 어머니와 숙모 등 몇몇 여성 친척들은 런던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했기에, 이는 가족들의 삶을 기리는 하나의 방식(John A.

7) 기록의 정보 가치란 2차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거 가치나 현물 가치와 무관하게 인물, 사물, 사건 등을 기술한 기록의 내용에 기초한 자료의 유용함과 중요함(한국기록학회 2008, 210)을 지닌다.

8) 기록의 증거 가치란 2차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 생산자의 기원·기능·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중요하다(한국기록학회 2008, 235).

Walker 2001, 146)이기도 했다.

작가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와 이미지, 도표, 영상 등 다양한 아카이빙 방법을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전시라는 예술 형식을 활용했다. 실제로 오브제, 문서, 필름, 영상, 이미지 등은 특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증거로 수집되었다. 개별적으로 그 기록들은 타인에게는 의미가 없고 이질적일 수 있지만, 작가들에 의해 연결되고 조직되어 새로운 차원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Laura Mulvey 1976, 40)을 보여주었다. 많은 비평가들의 말처럼, 전시장에 걸린 사진과 영상, 인터뷰, 표, 차트가 예술이 된 것은 명백하고, 그 전시물들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 노조 활동가나 여성 운동가의 수단으로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이 결과물들은 전시공간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예술적 결과물로 변화한다는 시각적 측면을 강조(Rosalind Delmar 1997, 93)하고 있다. 이 모든 흔적에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항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이 망라되어 있고, 더불어 이들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작가들의 가치관도 함께 내재해 있다.

1975년에 열려 다양한 평가를 받았던 전시 〈Women & Work〉는 〈Archive Display: Revisiting Women and Work〉라는 제목으로 사우스 런던 갤러리에서 45여 년 만에 다시 전시되었다.⁹⁾ 과거의 전시 자료뿐 아니라 당시의 전시 전경을 촬영한 사진, 참여 작가였던 메리 켈리의 영상도 함께 선보였다. 인터뷰 영상에서 메리는 〈Women & Work〉에 대해 “동일임금법을 시행하는 동안, 특정 산업에서 보인 노동과정과 노동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노동 분업에 관한 기록”이자 “사회에서의 노동 분업이 가정 내에서의 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처럼 〈Women & Work〉는 좁게는 공장에서 일하는 한 명의 개인을, 넓게는 1970년대 노동자와 여성이라는 사회적 공동체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기록은 사회적 불평등 속에

9) 신진작가와 큐레이터들로 구성된 그룹 'REcreative Editorial Board'와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Central Saint Martins) 석사 과정생들이 기획자로 참여했다.

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역사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침묵을 강요받아온 사회 내의 여러 집단들이, 주어진 삶의 조건에 따라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음을, 혹은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윤은하 2012, 33-34)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공장 한 곳을 조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설명하는 여러 기록들과 비교하여 더욱 정교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기록은 업무 과정을 파악하거나 정보 습득의 일환에서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삶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 우리 삶의 면면들을 기록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서 파생될 여러 시선을 담고 있기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록의 생산은 시대 상황을 담아내는 것뿐 아니라 사회 현상을 유추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원으로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정보적 가치를 지닌다. 더불어 〈Women & Work〉의 사례처럼 예술가들의 역할이 기록의 생산자로 확대할 경우, 그 결과물은 기록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한편으로는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점은 예술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예술가들이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할 때에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기록학에서 다루어온 고유한 범위를 넘어 다양한 기록의 생산과 수집, 기록행위가 문화적 인식에 도움을 주어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구미영, 2008. 해외의 성별 임금격차 시정 사례연구. 『여성연구』. 99(4).

- 김주현. 2013. 포스트예술 시대의 미학과 비평 -예술행동과 일상의 문화정치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4(2).
- 김준기. 2018. 한국 사회예술 연구 : 공공미술 너머 행동주의예술과 공동체예술을 향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예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2014. 『아키비스트의 시대적 요청 : 실천적 아키비스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안영현·김지혜. 2005. 프랑스 68운동과 미술의 변화: 미술의 대중화와 저항미술의 부상.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3.
- 양효실. 2016. 여성주의적 개입의 한 사례 - 메리 켈리의 <산후기록(Post-Partum Document), 19731979)>. 『미학』. 82(4).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 이경래·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 잉그리트 길허홀타이. 2009. 『68혁명, 세계를 뒤흔든 상상력 : 1968 시간여행』. 창비.
- 전형배. 2010. 동일가치노동의 평가 -영국의 선례와 시사점-. 『법조협회』. 59(5).
- 전혜숙. 2008. 미술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1968년: 개념미술의 등장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8.
- 하워드 진. 2009.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위즈덤하우스.
- 하워드 진. 2008. 『하워드 진, 세상을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랜덤하우스코리아.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 휘트니 채드윅. 2006. 『여성, 미술, 사회 -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시공사·시공아트.
- Allan Spear. 1984. Politics and the Professions. 『The Midwestern Archivist』. 9(2).
- Danto Arthur C. After the End of Ar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이성훈·김광우 역. 2004. 『미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 Elizabeth cowie. 2011. Recording reality, desiring the re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ns Haacke. 2016. Working conditions : the writings of Hans Haacke. The MIT Press.
- Jane G. Gonzales. 2013. ART AND THE ANTI-VIETNAM WAR MOVEMENT. The Degree Master of Arts in Sociology. San Diego State University.
- John A. Walker. 2001. Left Shift : radical art in 170s Britain. I,B,Tauris Publishers.
- Julia Bryan-Wilson. 2014. Miens of Production. Artforum International. 5.

- Kay Hunt · Mary Kelly · Margaret Harrison, 1975,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 South London Art Gallery.
- Lamm Kimberly, 2018, Addressing the other woma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Laura Mulvey, 1976, EXHIBITION reviews_POST PARTUM DOCUMENT, Spare Rib,
- Ronald Fraser, 1988, 1968: A Student Generation in Revolt, Chatto & Windus
- (안효상 역, 2002, 『1968년의 목소리 :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박종철출판사.)
- Rosalind Delmar, 1975, Women & Work , Spare Rib, 40.
- Rosalind Delmar, 1997, WOMEN & WORK : A DOCUMENT ON THE DIVISION OF LABOUR IN INDUSTRY, SOCIAL PROCESS/COLLABORATIVE ACTION : MARY KELLY 1970-1975, Charles H. Scott Gallery.
- Ursula de la Mare, 2008, Necessity and Rage: The Factory Women's Strikes in Bermondsey, 1911, 66.

〈참고 사이트〉

- Artforum(<https://www.artforum.com>)
- Margaret Harrison(<http://margaret-harrison.com>)
- Mary Kelly(<http://www.marykellyartist.com>)
- REcreativeUK (<http://recreativeuk.com>)
- South London Gallery (<https://www.southlondongallery.org>)
- Studio International(<https://www.studiointernational.com>)
- Tate (<https://www.tate.org.uk/>)